

사회복지시설 탐방 15 우리집 목사 김용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지막 쉼터



생의 마지막을 보살펴주는 편안한 안식처로 환자의 정신적 회복과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집(원안 김용민 목사)

“우리집은 생의 마지막을 보살피주는 편안한 안식처로 환자의 정신적 회복과 가족들의 회복에도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말기 암 등 불치병으로 고통 당하는 환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김용민 목사를 비롯,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4~5명의 환자들이 입소해

있다.

암에 걸린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것이 계기가 돼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다는 김 목사.

1998년 호스피스 시설이 전무했던 경기북부지역에 최초로 의정부와 포천의료원에 호스피스 팀을 운영한 것이 현재 우리집의 시작이다.

우리집은 2000년 현재의 어룡동에 위치하게 되었고, 5월에 신고시설로 전환했다.

김 목사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등 재건축을 준비했었으나 재산권 행사 등 제약이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판단, 포기했다”며 “이전의 건물에 편의시설인 보행 보조장치, 화장실 공사와 병실 수리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우건축의 김창녕 소장과 영원건설의 이종현 사장님께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집이 속한 우리호스피스 선교회에 크게 의정부의료원(사재형)과 로템하우스(실비 주·단

기보호시설), 의정부 백병원, 가정방문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김 목사가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다.

김 목사는 “우리집을 운영하다 보니 환자들이 자주 돌아가셔서 정상적인 노인들의 경우에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정부 고산동에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인 로템하우스를 설립했다”며 “현재는 건물이 낡아 보수를 하고 있지만, 곧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문적인 봉사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장소로는 의정부의료원이며 12주간의 교육을 통해 봉사를 양성하고 있다.

김 목사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후원이 많이 줄어 걱정이다”며 주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 농협 175-12-151384 (예금주: 김용민)
전화 : 031-533-0691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유아독존(唯我獨尊)과

'You are 독존'



석혜승
보문정사주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나누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마음 하나 존재한다는 심오한 가르침의 말씀이기도 하지

만 여기서는 ‘you are 독존’ - ‘당신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라고 다소 엉뚱한 해석을 해보기도 하겠다.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존재이다. 나도 이 우주에 하나 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남들도 모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다. 나와 너가 모두 ‘only I’ 이라는 말이다.

질 수밖에 없다. 넘버 1은 오직 1명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서열이나 특정한 척도의 순위로 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을 아주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시련성적이 떨어졌다고, 직장에서 감원대상이 되었다고,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해서 자신의 존재를 비하시킬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오직 나 자체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유아독존(唯我獨尊)이고 ‘you are 독존’인 것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마리아의작은자매회, 호스피스 병동 建立

8일 건립기념축하식 갖고 진료개시



국내에서 처음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천주교 마리아의작은자매회는 지난 8일 포천시 신음동에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독립형 병동 모현의료센터 건립 기념축하식을 가졌다.

국내에서 처음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천주교 마리아의작은자매회(관구장 박미영 수녀)는 지난 8일 포천시 신음동에서 호스피스 환

자를 위한 독립형 병동 모현의료센터 건립 기념축하식을 가졌다. 1965년 강릉 갈바리의원 개원과 더불어 호스피스 활동에 나선 뒤

1987년 서울에 모현가정호스피스를 건립한 이 수녀원은 포천시 신음동에 독립형 호스피스병동을 짓고 지난 8일 오전 11시 춘천교과장 장익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을 겸한 감사미사를 거행했다.

2천 평 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720평 규모로 건립된 모현의료센터(원장 박삼화 수녀)는 20개 병상과 임종실, 가족실을 비롯해 외래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화의학과를 개설, 월·수·금 오전 10시~오후 3시 진료를 실시한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삼자율방범대 創立 1주년 기념식

105명의 대원 지역사회 발전 위해 활약

영삼자율방범대(대장 임동호·57)는 지난 5일 소흘읍 이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영삼자율방범대는 지난해 6월5일 이곡리, 무림리, 직동리 주민대표 및 청·장년이 맡기게 대원 75명이 2천500여명 지역 주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창립 운영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은 정원식 소흘읍장, 이흥구 포천시의회의원 등이 참석해 감사패와 모범대원 표창, 대장 인사와 축사로 진행됐다.

이러진 체육대회는 대원들이 청백 팀으로 나누어 배구와 족구 경기로 치러졌다.

임동호 대장은 “1년간 방범활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



지난 5일 영삼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체육행사에서 앞서 이곡초등학교 교단에서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시보다 30여명의 대원이 늘어 현재 105명의 대원이 활약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일까지 45일간 공사를 진행, 자작동 534번지 일원(자작저수지 위)에 건립됐다.

이 시설은 총 182평으로 게이트볼장 2면,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한편 자작게이트볼협회 이규상 회장은 식사에서 “경기장 설치로 그 동안 인근부대나 공터를 찾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회원들과 시설을 잘 활용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자작게이트볼협회 회원과 기관단체장의 시수가 이어졌으며, 포천시는 자작게이트볼협회에 게이트볼 용구 1세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작동 게이트볼 활성화 기틀 마련

게이트볼장 2면 등 182평 開場



지난 8일 자작게이트볼장 개장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포천시 자작동에 게이트볼장이 준공돼 지난 8일 개장식 및 친선 게이트볼대회가 치러졌다.

이날 자작게이트볼장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개장식은 기관·단체장 및 게이트볼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치러졌으며, 개장식에 이어 관내 10개팀이 참가하는 게이트볼 대회가 진행됐다.

자작게이트볼장은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국비 50%와 시비 30%가 투입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9



일동청년회는 지난 5일 일동중학교운동장에서 제16회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일동면 주변 3개면 화합의 한마당

제16회 동문체육대회 지역화합의 礎石

일동청년회(회장 임종수)는 지난 5일 일동중학교운동장에서 일동, 이동, 화현면 초·중·고 체육인마당 제16회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동문 선후배의 단합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43기부터 68기까지 24개팀의 동문들이 참가해 축구, 배구, 400m 계주로 기수별 기량을 뽐냈고, 번외경기로 족구와 물풍선 받기, 공 멀리치기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임종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꼭 이겨야 한다는 신념보다는 서로간의 사랑과 신뢰로서 즐겁고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준비에 여념 없는 청년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결과는 ▶종합우승 46기(장년부), 58기(청년부) ▶종합준우승 47기(장년부), 54기(청년부) ▶종합3위 44기(장년부), 50기(청년부)가 차지했다.

한편 지난 15회 대회는 54기가 종합 우승한 바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터민은 이제 우리의 이웃”

새터민 한가족 결연식 마련



지난 2일 소흘읍 송우리에서 마련된 새터민 한가족 결연식 및 간담회에서 포천경찰서 김준희 과장이 새터민과 대한적십자사포천시지구 연호수 회장에게 자매결연패를 전달하고 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 소흘읍 송우리 모듬식점에서 ‘새터민 한가족 결연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포천시지구(회장 연호수) 회원과 새터민(탈북주민), 경찰서간의 1대1 자매결연을 통해 새터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포천시지구 회원 30여명과 새터민 20여명, 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뤄졌다.

포천경찰서 김준희 과장은 인사말에서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짧은 교육으로 남한 사회에 투입된다는 것이 남북의 분단세월 믿음이나 힘이 들기에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고자 자매결연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자매결연으로 민간과 새터민간의 우호교류로 원만한 정착이 이뤄질 바란다”고 밝혔다.

연호수 대한적십자사포천시지구회장은 “민간과의 결연을 통해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남북주민들의 이질감을 해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새터민과 민간인들간의 자연스런 만남을 위해 석사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새터민과 대한적십자사포천시지구회원, 경찰서의 자매결연과 및 기념품 증정 등 화합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라이온스클럽 創立 6주년 기념식

신임 김형석 회장 就任



포천라이온스클럽과 포천경북레오클럽은 지난 1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라이온스클럽 6주년 및 포천경북레오클럽 1주년 창립기념행사를 실시했다.

포천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형석)과 포천경북레오클럽(회장 조종하)은 지난 1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라이온스클럽 6주년 및 포천경북레오클럽 1주년 창립기념행사를 실시했다.

“걷기 통해 화합 이뤄요”

영북면 걷기대회 주민 1천300여명 참여

영북면체육회(회장 안천중)는 지난 5일 7시 30분 영북면사무소를 출발 단양교와 기갑사단의 4.1km 구간으로 하는 제4회 영북면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영북면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된 이날 대회는 주민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며 치러졌다.

대회에 앞서 치러진 기념식에서는 박은국 포천시장과 고조홍 국회의원, 이문근 영북면장 등 내빈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해 주었으며 대회개회에 도움을 준 ▶의용소방대장 정해군 ▶승화식품 김백근 ▶영북면 김은정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한편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많은 경품이 준비돼 화제가 되었는데,



영북면 체육회는 지난 5일 영북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주민 1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영북면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마련된 자전거 45대, 축구공 50개, 10kg 쌀 20포대, 한화콘도 숙박권 3개, 부스터, 종합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중, 운동일 전국

소년체전서 金1, 銀1, 銅1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청주를 비롯한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고 2학년으로 참가한 포천중 운동일(3년) 선수가 남중부 50kg급에서 금1, 은1, 동1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학교의 권유로 중학교 1년부터 역도를 시작했다는 운동일 선수는 짧은 기간동안 경기고 대회에서 3관왕을 3회 차지하는 등 금9, 은6, 동5를 차지하는 등 남중의 기량으로 포천역도의 대물보로 성장하고 있다.

포천시청 이돈재

전국육상선수권대회 金



이돈재 선수가 전국육상선수권대회 400m 허들 경주에서 1위로 톱과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돈재 선수는 지난 4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 허들 경주에서 부산대 신용성 선수(53초 10)와 영남대 김정정 선수(53초 20)를 제치고 52초 2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